



KRW1

PROOF-OF-CONCEPT

목 차

- 3 요약
- 4 서론
- 7 시장 환경 및 수요 요인
- 8 규제 및 준법 환경
- 10 기술 및 아키텍처
- 13 준비금 증명 및 투명성 메커니즘
- 15 거버넌스, 리스크 및 통제 프레임워크
- 17 KRW1 생태계: 활용 사례
- 19 전망 및 로드맵
- 21 리스크 공시
- 23 결론

요약

오늘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 달러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래머블 파이낸스 생태계에서 주요 국가 통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KRW1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KRW1은 한국의 대표적이고 규제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수탁사인 BDACS가 개발한 100% 담보형 원화(KRW) 스테이블코인이다. KRW1은 기술적·규제적 개념증명(proof-of-concept) 단계로, 한국 디지털 자산 부문의 인프라 완비 수준을 입증하고, 동시에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국가 금융혁신 아젠다를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KRW1은 원화에 대해 1:1 준비금을 유지하며, 준비금은 국내 1등급(Tier-1) 시중은행 내 별도 계좌에 보관된다. 또한 실시간 준비금 검증, 주기적인 증명(attestation), (규제 요구 사항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그리고 개념증명에서 상용 단계로 전환 시 매년 제3자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포괄적 리스크-준법-감사 체계에 따라 관리된다. 이러한 체계는 사용자 보호의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디지털 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안정적인 가치 연동을 보장한다.

첨단 금융 인프라와 활발한 디지털 자산 참여로 인정받는 한국 시장은 2025년 1분기에만 약 57조 원(미화 약 410억 달러)의 국내·국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처리하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2024년에 5천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KRW1은 원화를 활용한 안전하고, 신속하며(low-latency), 규제 준수형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급변하는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원화 기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

기술적으로, KRW1은 EVM 호환 체인을 포함한 다수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장형 상호운용 모듈과 이중 환경 발행 구조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공용 네트워크와 허가형 원장 모두에서 배포가 가능하며, 동시에 지갑 단위의 준법 통제와 은행 코어시스템과의 원활한 준비금 조정 기능을 유지한다.

명확히 하자면, 본 개념증명 단계는 상업적 출시가 아니다. KRW1의 발행 목적은 실행 가능성, 인프라의 무결성, 그리고 규제 정합성을 입증하는 데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한국 은행권과 협력하여 국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수명주기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KRW1은 기관급 수탁, 블록체인 네이티브 기능성, 실시간 규제 관찰성을 결합함으로써 한국 내 법정화폐 기반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KRW1은 BDACS와 한국을 규제 준수, 확장성 및 법정 통화와 정합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혁신의 선두로 이끌고,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향후 상용화 및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에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는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안정적 가치를 갖는 수단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는 데 핵심적이며, 더 나아가 원화의 디지털화는 스테이블코인이 다음 세대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US 41_B (약 57조 원)

한국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2024년 추정)

US 500_B (약 700조 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2024년 추정)

US 8,000_B (약 1경 1,112조 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2024년 추정)

2.1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진화

2010년대 중반 등장한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틈새적 수단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였다. 본래 암호자산의 변동성과 법정화폐의 예측 가능성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으로 고안된 스테이블코인은, 현재는 중앙화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탈중앙화금융(DeFi), 송금, 결제 게이트웨이(PG), 청산 결제 시스템, 토큰화 금융상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 시가총액은 1,3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연간 거래량은 8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초월하여 프로그래머블하게 활용 가능한 법정 통화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전 세계 소매·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압도적 다수는 미국 달러화 연동 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의 강력한 기축통화 지위와 최근 미국 내 규제 명확성 제고의 영향에 기인한다.

2.2 미국 달러화 중심 모델의 한계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도달력을 제공하나, 그 지배적 구조는 몇 가지 구조적 의존성을 야기한다:

- **환율 위험:** 원화 등 달러화 아닌 통화 사용자가 국내(예: 한국) 또는 역내(예: 아시아-태평양) 환경에서 미국 달러화 토큰을 활용할 경우, 환율 변동성에 노출된다.
- **통화 비대칭성:** 외화 표시 토큰이 지배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각국이 자국 통화를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 **규제 마찰:** 규제 환경에서 외국 통화 사용은 추가적인 규제 준수 부담 또는 법적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아시아, 유럽, 중동의 금융시장은 자국 통화와의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점차 탐색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3 원화 표현의 전략적 중요성

한국 경제는 디지털화 수준이 높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내수 기반이 강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래량 기준 가장 활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중 하나이고, 금융 부문은 고도 자동화되어 있다. 또한 규제 체계는 강력한 사용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혁신을 점차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아직 토큰화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있어 우려할 정도의 격차를 나타내면서도,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규제 준수형, 법정화폐 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다음을 가능케 한다:

- 국내 결제, 자금 관리, 기업 간 결제의 자본 효율성 제고
- 국경 간 흐름에서 외환 의존도 및 자본 유출 완화
- 한국의 교역·관광 네트워크에서 원화를 디지털 교환 수단으로 촉진
- 신흥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한국의 통화 주권 강화
-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토큰(NFT), 실물자산연계토큰(RWA) 등 디지털 자산의 네이티브 결제 토큰으로서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

2025년 1분기 한국은 미국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약 57조 원(약 410억 달러)의 국내 거래를 처리하였다. 한편,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5,1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역시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었다. 이 수치는 법정 통화로 담보된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과 기회를 분명히 보여준다.

2.4 BDACS의 비전과 목표

BDACS(Beyond Digital Asset Custody Service)는 한국의 대표적인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 자산 수탁사이다. 안전한 수탁, 기관 금융, 블록체인 규제 준수 분야의 깊은 역량을 기반으로 BDACS는 원화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KRW1을 발행·관리할 독보적 위치에 있다.

현재 단계에서 KRW1은 상업적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아닌, 기술적·운영적·규제적 기반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증명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발행 및 상환 워크플로우, 준비금 분리, 다중 체인 배포, 지갑 단위 준법 준수가 포함되며, 이는 한국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및 앞으로 발효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다.

BDACS는 KRW1을 사용자 보호, 보안,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제도적 핵심 블록으로 구상한다. KRW1은 항상 원화로 1:1 상환 가능한 완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되었으며, 준비금은 국내 1등급 시중 은행의 수탁·관리 하에 보관된다. 월별 준비금 증명을 통해 발행된 KRW1 규모가 항상 원화 준비금보다 크지 않음을 보장한다.



비덱스(BDACS)는 법인 및 기관투자자를 위한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보관, 글로벌 거래시장 접근, 스테이킹, 렌딩, 에스크로우, 리포팅 등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을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혁신적인 프라이م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한다.

비덱스는 갤럭시 디지털, 우리은행과 같은 글로벌 리더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기관급 디지털 자산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비덱스는 법인 및 기관투자자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신뢰, 보안,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

시장 환경 및 수요 요인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확산, 기관 투자자의 진입, 그리고 국경 간 거래 흐름이 결합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원화(KRW)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외 수요 요인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3.1 국내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데이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는 약 104조 원(미화 약 8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 GDP의 약 5%에 해당한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57조 원(약 41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주로 미국 달러화 연동 자산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거래량이 2024년 3분기 대비 세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분석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더 큰 추세를 지적한다. 2024년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하고, 이 지역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허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한국 내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상반기에만 6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기록하였다.

디지털 자산 수용은 광범위하다. 현재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약 1,600만 명(인구의 약 3분의 1)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 투자자의 깊은 시장 참여와 높은 인프라 수용성을 동시에 반영한다.

3.2 기업 자금관리, 송금 및 K-컬처 수요

기업들은 점차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송금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B2B 활용—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결제를 포함—은 전통적 암호화폐 영역을 넘어 확장되는 운영 활용을 보여주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반에서 국경 간 결제는 스테이블코인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속도, 비용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관광 산업, 특히 K-컬처 및 관련 마이크로 경제(예: 이벤트,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수요의 잠재적 벡터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계량화된 데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분야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활용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3.3 경쟁 환경 분석

국내 금융기관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토스 등을 포함한 9개 주요 시중 및 인터넷 은행들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의사를 발표하였다. 반면, 미국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여전히 거래량을 지배하고 있으며, 외화 의존 및 금융 자율성 약화와 관련된 정책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급결제 구조에서 그 구조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규제 및 준법 환경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은 국내 입법, 감독 지침, 그리고 글로벌 기준 제정의 수렴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제정, 그리고 GENIUS Act, FATF 권고안, EU의 MiCA 제도 등 국제 규범과의 정합화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발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인가, 발행, 준비금 요건을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규제 명확성과 국경 간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1 한국의 규제 진화 (2024-2026)

한국은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 한국은행(BOK)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제안된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은 기존의 다양한 규제를 통합하는 포괄적 법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확대하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 감사, 수탁 요건을 규정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4분기에 제정되고,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이 통화정책과 자본 안정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한국은행은 우선 규제를 엄격히 받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2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그 시사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위한 법적·규제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라이선스 및 발행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납입 자본금 요건 등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담보 및 수탁 요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전액 법정화폐로 담보되어야 하며, 파산격리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 제3자 감사가 의무화되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신용 위험을 최소화한다.
- **규제 감독:**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금융위원회(FSC)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금융감독원(FSS)과 한국은행(BOK)도 시스템 리스크와 통화정책 관련 영향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되어 토큰 심사 및 공시 의무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의 디지털 자산 환경은 근본적으로 첨단화되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규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4.3 GENIUS 법안과 민간 부문 활성화

2025년 미국에서 제정된 「GENIUS 법안」은 한국의 규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며, 발행자 등록, 준비금 기준, AML/CFT 준수 요건을 설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KYC, 감사, 준비금 공시, 리스크 관리 등 유사 요건을 자국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GENIUS 법안을 언급하였다.

4.4 글로벌 규제 정합성 (FATF, SEC, IOSCO)

한국은 글로벌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하고 있다:

- **FATF 권고안:** 트래블룰 적용 및 AML/CFT 의무 강화.
- **EU의 MiCA 규제:** 2024년 중반부터 시행, 전자화폐 및 자산담보형 토큰 규율.
- **미국 모델:** FINCEN, SEC, GENIUS 법안 등에서 비롯된 감독 체계.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규제 접근법은 국제 관할권과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게 되며, 이는 국경 간 준법 및 표준화를 가능하게 한다.

기술 및 아키텍처

KRW1 개념증명(PoC) 아키텍처는 완전한 규제 준수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은 공용 및 허가형 배포를 모두 지원하고, 기존 은행 인프라와 직접 통합되고, 지갑 단위의 준비금 및 규제준수를 엄격히 유지한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기관, 기관 파트너, 금융기관, 개인 사용자 모두에게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네이티브의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부여한다.

5.1 다중 체인 배포 모델

KRW1은 EVM(Ethereum Virtual Machine) 호환 체인을 포함한 다수의 블록체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KRW1은 공용 레이어1 네트워크, 허가형 기관용 체인, 안전성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브리지체인에 배포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발행 모델은 개방형 시장 활용 사례와 규제된 기관 전용 배포를 모두 지원한다.

발행 및 상환 메커니즘은 BDACS의 규제 인프라 백엔드에 의해 관리되고,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모듈을 통해 모니터링된다. 새로운 토큰은 준비금이 검증 및 확보되었을 때만 발행되며, 1:1 비율이 보장된다. 소각 작업은 BDACS의 준비금 관리 원장에서 상환 확인과 연동되어 수행된다.

5.2 커스터디 스택: MPC + 콜드월렛 통합

BDACS는 글로벌 표준의 하이브리드 커스터디 아키텍처를 활용한다.

1. 다자간 연산(MPC) 기반 키 관리: 안전한 운영 접근성을 제공.
2. 에어갭 콜드월렛 분리: 오프라인 보관 및 규제 통제 자산 관리.

이중 구조는 운영상의 유연성과 최고 수준의 보안을 동시에 제공한다. MPC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토큰 준비금이나 발행 권한에 단독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콜드월렛은 장기 보유 자산을 보호하여 고객 자금과 발행자 자금의 엄격한 분리를 보장한다.

BDACS의 커스터디 기술 스택은 이미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수준이며, ISMS 및 ISO 27001 인증을 포함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기준을 충족한다. 독립적인 제3자 보안업체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플랫폼의 견고성을 추가 검증한다.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 자산 수탁사로서 BDAC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규제되고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잠재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과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5.3 컴플라이언스 모듈 및 지갑 통제

개념증명 단계에서 KRW1과 상호작용하는 지갑은 BDACS가 관리하는 사전 승인 및 등록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컴플라이언스 모듈은 다음을 지원한다:

- 오프체인 신원 확인을 통한 KYC/AML 집행
- 자동화된 거래 필터링 및 모니터링 (법적 요건이 있는 경우 자금 동결 포함)
- 금융당국, FATF 권고안에 부합하는 제재 및 블랙리스트 관리
- 고도화된 규칙 적용이 가능한 네이티브 모니터링

이러한 정책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프록시 스마트컨트랙트와 BDACS의 신원확인 레이어와의 백엔드 통합을 통해 집행된다.

5.4 코어뱅킹 및 원장 통합

KRW1의 백엔드는 국내 1등급 시중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과 직접 통합되도록 구축되었다. 해당 프로토콜은 준비금 계좌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온체인 토큰 발행과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은행 통합은 다음을 보장한다:

- 담보 보관용 분리된 법정화폐 계좌
- 자금 유입·유출의 실시간 확인
- KRW1 공급량과 원화 준비금 잔액 간의 일일 조정

BDACS가 관리하는 KRW1 원장은 실물 은행 거래를 반영하며, 발행 스마트컨트랙트와 감사를 거친 API 릴레이를 통해 연결되어 디지털·법정 계층 간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한다.

5.5 상호운용성 및 크로스체인 전송

KRW1은 검증된 상호운용 프로토콜을 통해 크로스체인 기능을 지원한다:

- 블록체인 노드 간의 안전한 메시징을 위한 독자적 기능
- EVM 체인 간 전송을 위한 래핑 토큰 발행
- 네트워크 간 지갑 단위 KYC 상태를 유지하는 컴플라이언스 브리지

크로스체인 지원을 통해 KRW1은 규제 통제 및 준법 기준을 분절시키지 않고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서 채택될 수 있다.

5.6 토큰 라이프사이클 흐름 (발행에서 상환까지)

KRW1은 규제 우선(regulatory-first)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구상되었고, 발행-상환-소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전액 담보, 규제 준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 1 **온보딩**
고객은 한국 규제 기준에 따른 KYC/AML 실사를 거쳐야 하며, 검증된 주체에게만 화이트리스트 지갑이 부여된다.
- 2 **입금**
원화는 국내 1등급 시중은행의 분리된 준비금 계좌에 입금되고, 이는 고객 자금과 BDACS 운영자금의 엄격한 분리를 보장한다.
- 3 **발행**
은행으로부터 입금 확인이 완료되면 1:1 비율로 KRW1 토큰이 발행되어 승인된 지갑에 전송된다.
- 4 **유통**
KRW1은 규제 감독과 거래 모니터링 하에서 통합된 플랫폼 및 준법 지갑에서 활용될 수 있다.
- 5 **상환**
권한 있는 보유자는 KRW1 토큰을 BDACS 관리 소각 주소로 전송하여 상환을 요청하고, 이는 유통량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 6 **정산**
상환 후, 분리된 준비금 계좌에서 동등한 원화가 인출되어 보유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 7 **감사 및 검증**
라이프사이클 내 모든 거래는 기록·조정·독립적 증명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제3자 감사 및 규제 보고를 통해 시스템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 라이프사이클 프레임워크는 KRW1이 항상 전액 담보되고 액면가로 상환 가능함을 보장하며, 개념증명에서 규제된 상용 단계로 전환될 때 기관 수준의 준법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준비금 증명 및 투명성 메커니즘

완전 담보,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 구축과 규제 준수, 그리고 사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규제 준수에 초점을 맞춘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그리고 규제 승인된 디지털 자산 수탁사가 발행하는 자산으로서 KRW1은 준비금의 완전성과 가시성을 보장한다.

6.1 준비금 모델: 1:1 담보

KRW1은 전액 준비금(full-reserve) 모델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으며, 원화와의 엄격한 1:1 담보를 유지한다. 준비금은 발행자인 BDACS의 운영 자금과 철저히 분리된 별도 계좌에 보관되며, “파산격리(bankruptcy remoteness)”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 사용자가 액면가(par value) 상환 권리를 항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뱅크런(bank run)” 상황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6.2 준비금 관리 (1등급 은행 수탁)

KRW1의 담보 준비금은 국내 1등급 시중은행을 통한 기관급 수탁 방식으로 관리된다. 준비금은 강력한 보안 조치를 통해 보관되며, 유동성, 감사 가능성, 기존 준비금 분리 규제 준수 여부를 보장한다. 월별 증명을 통해 준비금이 유통 중인 토큰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이 확인되며, 매년 독립적인 제3자 감사가 이를 강화한다.

6.3 실시간 검증 및 증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KRW1은 안전한 감사 프로토콜을 통해 실시간 준비금 검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공개 대시보드를 통해 준비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지연을 최소화하고 지급준비금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

실시간 준비금 증명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항상 완전히 담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업계 모범 사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시장 신뢰와 장기적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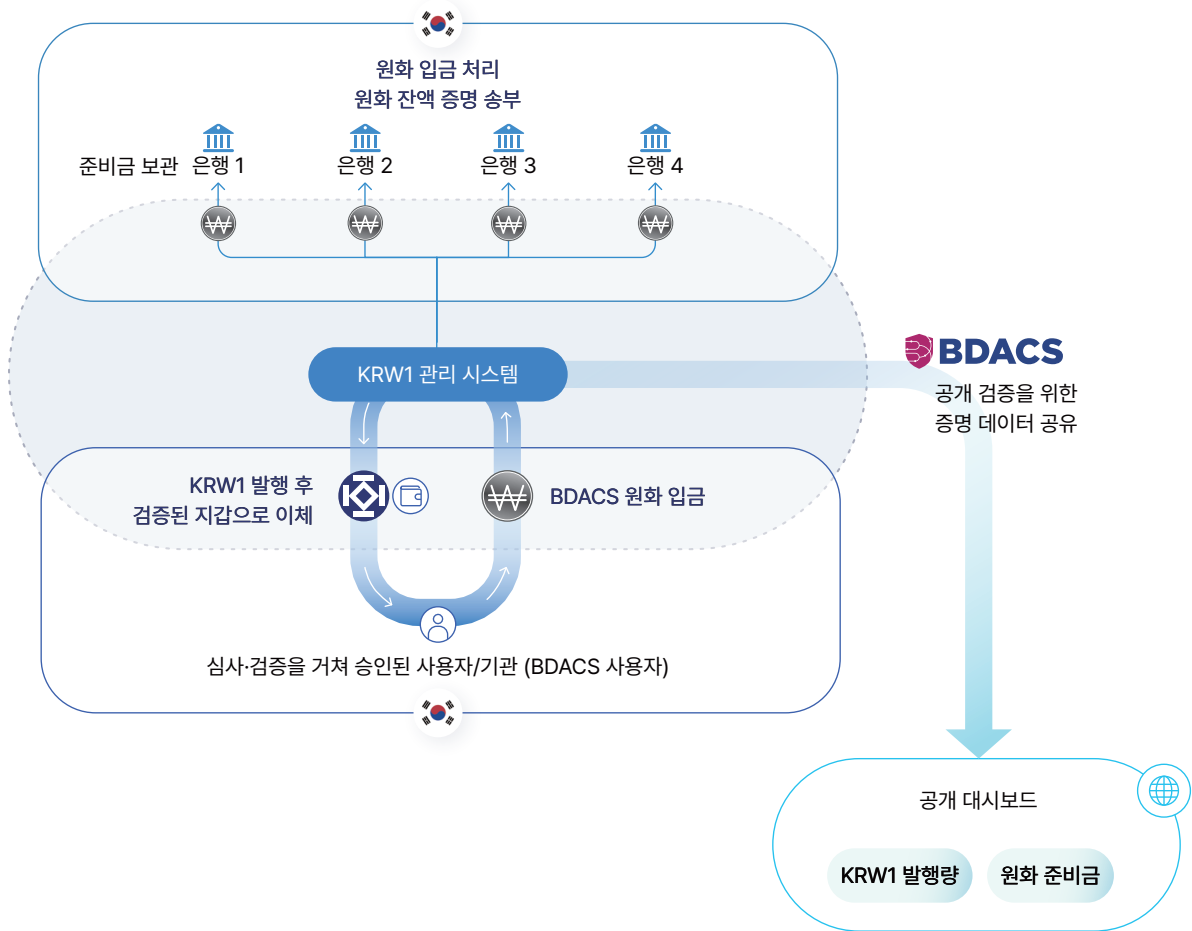
6.4 감사 절차 및 오픈뱅킹 API

KRW1은 감독기관 및 규제당국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다층적 투명성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 **은행 검증 증명:** 준비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매월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1:1 원화 담보 유지 및 준비금 분리 여부가 지속적으로 입증된다.
- **독립적 제3자 감사:** 공인 회계법인이 반기마다 수행하는 검증을 통해 준비금의 적정성, 운영 건전성, 적용 가능한 금융 규제 준수 여부가 외부적으로 보장된다.
- **오픈뱅킹 API:** 보안이 확보된 규제기관 접근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체인 토큰 공급과 오프체인 준비금 잔액 간의 실시간 조정이 가능해져 감독기관이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학적 검증과 제도적 감사의 이중 프레임워크를 통해 KRW1은 어떠한 진화하는 규제 환경에서도 완전한 준법성, 투명성, 그리고 집행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은 KRW1의 관리 체계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며, 각 보호장치 요소가 규제 준수 보장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1> KRW1 관리 체계에 관한 개요

거버넌스, 리스크 및 통제 프레임워크

KRW1의 장기적 신뢰성과 규제 정합성은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 선제적 리스크 관리, 투명한 통제 메커니즘에 달려 있다. 본 프레임워크는 전액 준비금 보호, 강제적 상환 권리, 투명한 감사 가능성을 보장하여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관 신뢰, 사용자 신뢰, 운영 회복력을 유지한다.

7.1 거버넌스 기구 및 의사결정 절차

KRW1이 본격적으로 상용 단계에 들어가면, 한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다층적이고 명확한 구조에 기반한다:



<그림 2> KRW1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계층적 거버넌스 체계

- 1.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은행을 포함하여 파트너사들을 대표하는 고위 임원으로 구성되며, 전략 방향, 정책 집행, 건전성 기준과의 정합성을 책임진다.
- 2. 리스크·감사위원회(Risk & Audit Committee):** 운영, 재무,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완화 프로토콜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시스템 무결성과 사용자 이익을 보호한다.
- 3. 외부 자문위원회(External Advisory Board):** 규제 전문가, 법률 자문,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고, 독립적이고 지속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사용자 보호를 KRW1 생태계의 핵심에 내재화한다.

7.2 리스크 범주 및 완화 방안

KRW1의 리스크 환경은 구조화된 다차원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리된다:

- **사이버 보안 리스크:** 정기적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지속적 침입 탐지, 오프체인 컴플라이언스 오라클, MPC 및 에어갭 콜드월렛 아키텍처 분리를 통해 단일 실패 지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예방한다.
- **시장·유동성 리스크:** 전액 원화 준비금 담보를 유지하고, 은행 준비금과 토큰 공급 간 실시간 조정을 수행하며, 상환 압력 및 “뱅크런”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절차를 도입한다.
- **규제 리스크:**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변화하는 법률 및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감독 요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모듈을 적용한다.
- **운영·결제 리스크:** 거래 자동 기록, 은행 파트너와의 API 수준 조정, 비상 계획을 통해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산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제적 스테이블코인 감독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수준을 보장하여 사용자 보호, 시스템 회복력, 규제 신뢰를 강화한다.

7.3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KRW1의 스마트컨트랙트는 무결성, 회복력, 적응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업그레이드 가능한 프록시 패턴:** 온체인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보안 패치나 개선을 통제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 **형식 검증 및 독립적 감사:** 배포 전 취약점을 탐지·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며, 방어 가능한 보증 기준을 확립한다.
- **거버넌스 통제 접근권한:** 승인된 거버넌스 기구만 업그레이드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발행 중단(emergency freeze) 메커니즘을 발동하여 사용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 설계는 KRW1 스마트컨트랙트가 기관급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도, 규제 및 보안 요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7.4 투명성 포털 및 이해관계자 감독

KRW1은 기관급 투명성을 제공한다:

- **이해관계자 대시보드:** 토큰 공급, 준비금 잔액, 감사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 **공개 스냅샷:** 감사 요약 및 준비금 증명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를 강화한다.

	기간	방법	공시
제3자 감사	반기	(글로벌 4대 회계법인 - Deloitte, PwC, EY, KPMG)	웹사이트
확인서	매월	시중은행 증명	웹사이트
실시간 확인	실시간	오픈뱅킹 API 준비금 검증	웹사이트

7.5 사용자 보호

KRW1은 최종 사용자 보호 및 신뢰 강화를 위해 다층적 보호 장치를 내재화한다:

- **발행 권한:** 규제받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VASP)의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따른 KYC·AML 절차를 이행한 법인 및 기관만이 원화(KRW)를 예치하고 KRW1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상환 권리:** 모든 KRW1 토큰은 1:1 원화 상환이 보장되어 사용자는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모든 KYC/AML 절차는 규제된 VASP에 의해 한국 규정에 완전 준수하여 수행되며, 사용자 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통제 하에 처리·저장되어 오용이나 무단 유출을 방지한다.
- **투명성 및 감독:** 독립적 감사, 은행 증명, 규제기관 접근 가능 API를 통해 준비금이 완전히 유지되고 상환 권리가 보호됨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 **소비자 보호 조치:** 비상 상황 시 지갑 동결 기능을 포함한 대응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어 사기, 시스템 리스크, 운영 실패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 장치는 KRW1이 단순히 편리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권리, 시스템 회복력, 전면적 규제 준수에 기반함을 보장한다.



KRW1 생태계: 활용 사례

KRW1의 효용은 한국의 경제, 문화,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도록 설계되었다. 소매 결제 및 전자상거래에서부터 송금, 기관 거래, 나아가 디지털 티켓팅 및 예술품 토큰화와 같은 문화적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KRW1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경제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8.1 국내 기업 자금관리 및 결제

KRW1은 국내 기업 재무 기능을 위해 실시간 결제 및 프로그래머블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전통적 결제 시스템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 블록체인 네이티브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유동성 관리 간소화, 기업 간 정산 지연 최소화, 조정 오류 축소를 지원한다.

8.2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5,19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래머블하고 비용 효율적인 가치 이전 수단에 대한 강한 수요를 입증한다. KRW1은 환율 위험을 줄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하며, 거래 비용을 낮추는 한국 원화 기반 대안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수출기업, 해외 근로자, 중소기업(SME)에 큰 혜택을 준다.

8.3 관광, K-컬처,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경제

한국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은 K-팝,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한류에 의해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2025년 주요 관광지에는 스테이블코인 연동 디지털 텔러 머신(DTM)이 도입되어 외국인 관광객이 USDT를 KRW 또는 교통 크레딧으로 생체 인증을 통해 즉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히 원화 기반 KRW1 같은 네이티브 통화형 스테이블코인 적용 시 관광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다.

KRW1은 관광지, 팬 참여 플랫폼, K-컬처 이벤트 등에 직접 내장될 수 있어, 마이크로 결제, 수집형 디지털 자산 배포, 위치 기반 지불을 규제 준수형·실시간 형식으로 지원한다.

8.4 B2B 기업 인프라

KRW1은 기업 시스템 내 결제 레이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머블 자금 흐름, 국경 간 공급업체 결제, 온체인 송장 처리 등이 가능해진다. KRW1은 또한 조건부 결제와 연동된 비즈니스 로직 자동화, 중개기관 제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B2B 현금 흐름 주기를 개선할 수 있다.

8.5 DeFi, 트레이딩 및 자산 토큰화 활용

KRW1은 안정적이고 완전 담보형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서, DeFi 프로토콜 내 대출,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담보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원화 기반 실물자산(RWA)을 토큰화하는 데 사용되어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레일을 연결한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한국의 활발한 트레이딩 문화는 이러한 응용을 위한 이상적 환경을 제공한다.

8.6 결제 카드 정산

KRW1은 일상 결제를 더욱 빠르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만든다. 원화 표시 디지털 자산으로서, KRW1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서나, 실물카드 및 가상카드 어느 방식으로든, 결제카드가 작동할 수 있게 한다.

KRW1은 블록체인 기반 레일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이나 외환 처리기관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 결제 지연이나 숨은 수수료가 제거된다. 모든 거래는 즉시 정산되며, 환불은 수분 내 처리된다. 또한 전통적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약 3% 수준인 것에 비해, KRW1의 처리 수수료는 0.0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전망 및 로드맵

KRW1 프로젝트는 단계적이고 규제 정합적인 개발 모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개념증명 (PoC) 단계는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상업적 발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로, 이는 규제 준비도, 은행 파트너십, 인프라 확장에 달려 있다. 주요 이정표와 장기적 비전은 KRW1이 국내외 환경 어디서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자 하는 포부를 반영한다.

9.1 개념증명 단계의 주요 이정표 (2025-2026)

2026년까지의 주요 목표는 규제 준수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운영적·규제적 가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BDACS는 다음 이정표에 집중한다:

- **규제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예상되는 규정 및 미국 「GENIUS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 **은행 배포:** 1등급 시중은행을 통한 발행 및 상환 시스템 전면 통합
- **실시간 거래 시뮬레이션:** 화이트리스트 지갑 간 실시간 결제를 통한 정산·소각·상환 기능 테스트
- **월별 증명 및 감사 준비:** 대시보드 기반 준비금 증명 출시 및 제3자 감사 대비
- **크로스체인 검증:** 다수 공용 및 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 및 준법성 검증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제어 테스트:** 모바일 지갑 흐름, 개발자 API, 지갑 단위 신원 연동 도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러한 과제들은 KRW1이 안전하고 규제 준수형 인프라 모델 하에서 확장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초석을 이룬다.

9.2 2026년 이후: 상업적 목적의 발행 준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KRW1은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업적 목적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된다. 2026년 이후 로드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출시 공개:** 소매, 기업, 기관이 모두 준법적 통제 장치 내에서 KRW1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 **은행 네트워크 확장:** 국경 간 KRW1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국내 은행 온보딩 및 국제 은행 협력 탐색
- **소매 및 기업 통합:** 핀테크 플랫폼, 가맹점, 거래소, DeFi 프로토콜과 협력하여 관광, 자금관리, 자산 토큰화 등 실제 활용사례를 활성화
- **규제기관 대상 실시간 보고:** 오픈뱅킹 API와 준법 대시보드를 통해 감독기관이 실시간 토큰 흐름 및 준비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KRW1은 한국의 대표적 법정화폐 담보 디지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전통 금융, 프로그래머블 머니, 국제 결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9.3 기술 확장 (CBDC 연계, 영지식 증명, RWA 커스터디)

향후 KRW1은 더욱 진화된 인프라를 위한 모듈형 기반으로 구상된다:

- **CBDC 연계성:**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를 도입할 경우, KRW1 아키텍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영지식 증명(zkProof) 모듈:** KRW1의 준법 레이어는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AML 준수 논리를 내재한 상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형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 **RWA 커스터디 통합:** 채권, 부동산, 구조화 금융상품 등 규제 준수하는 커스터디 하에 있는 실물자산(RWA)의 정산 자산으로서 KRW1을 확대 적용

다가오는 차세대 발전은 프로그래머블 파이낸스가 **국가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를 갖춘** 인프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KRW1이 그 의미와 활용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리스크 공시

모든 법정화폐 담보형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KRW1 역시 법적, 시장적, 기술적, 운영상 여러 범위의 위험을 수반한다. 본 위험 공시는 제도권 기관투자자, 규제당국, 사용자에게 잠재적 취약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0.1 법적 및 규제 리스크

-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은 여전히 발전 중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는 2026년 이후까지, KRW1은 상업적 금융상품이 아닌 개념증명(PoC) 단계에 머물며,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 **관할권의 복잡성:** 해외 거래자가 KRW1을 사용할 경우, 각국의 디지털 자산 법률 해석 차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준법 집행 리스크:** 국내외 규제기관이 집행 정책을 변경할 경우, BDACS는 발행 중단, 토큰 동결, 거버넌스 구조 재편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KRW1 발행자인 BDACS는 법률 자문 및 한국 주요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VASP 규제, 은행 규제와 완전 정합성을 확보할 것이다.

10.2 시장 및 가격 안정성 리스크

- **유동성 리스크:** KRW1은 비상업적 파일럿 단계에서 2차 시장 유동성 보장이 없다. 상환 수요는 기초 원화 준비금 접근성이나 은행 인프라 지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페그(peg) 이탈 리스크:** KRW1은 전액 담보되어 있으나, 감사 지연, 상환 실패 등 운영상 오류나 시장 심리로 인해 원화 대비 거래 가격 괴리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상환 병목 현상:** 상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원화 준비금 방출 속도나 결제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BDACS는 개념증명 단계에서 보수적 발행 한도를 유지하고, 투명한 준비금 증명과 실시간 조정을 통해 신뢰성을 유지한다.

10.3 커스터디, 보안 및 운영 리스크

-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성:** 제3자 감사와 형식 검증을 거치더라도 미탐지 버그나 제로데이 공격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 **커스터디 침해 또는 내부 위협:** 다자간 연산(MPC)과 계층적 접근통제를 통해 단일 실패 지점을 줄이지만, 물리적 공격이나 사회공학적인 위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인프라 다운타임:** 은행 API, 지갑 통합, 컴플라이언스 모듈의 중단은 발행·상환 능력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BDACS는 실시간 모니터링, 오프체인 이중화, 사고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완화한다.

10.4 사업 연속성 및 비상계획

- **발행 중단 프로토콜:** 규제 통보, 보안 침해, 시장 불안정 시, BDACS는 발행 중단, 지갑 동결, 통제된 상환을 스마트컨트랙트 모듈을 통해 즉시 실행할 수 있다.
- **복구 및 보고:** 데이터 백업, 외부 서버 이중화,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포함하는 재난 복구 프레임워크를 갖춘다.
- **준비금 접근성:** 원화 준비금은 1등급 시중은행의 계좌에 분리 보관되어, 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접근이 보장된다.

이 접근법은 금융안정위원회(FSB), FATF, 한국 금융당국의 글로벌 규제 모범사례에 부합하며, KRW1이 개념증명 단계에서 상업 발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본 공시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

KRW1은 법정화폐 담보, 완전 규제 준수,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기관 신뢰를 확보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립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를 의미한다. 통합된 규제형 커스터디 플랫폼, 실시간 준비금 조정, 엄격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개념증명을 실현함으로써, 한국이 차세대 디지털 금융 자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기술적 파일럿을 넘어선다. KRW1은 한국이 자국 통화를 프로그래머블 파이낸스의 중심에 둠으로써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의존을 줄이고, 국내 통화 주권을 강화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KRW1은 규제 친화적으로 설계되었고, 사용자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며, 한국의 최고 등급 은행 파트너와 원활하게 연동된다. 다층적 투명성 메커니즘과 진화하는 감독 기준에 정합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KRW1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혁신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한국이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해감에 따라, 원화 기반과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두를 포괄하여, KRW1은 시연 단계에서 규제된 상업 발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소매, 기업, 문화, 국경 간 활용사례 전반에서 명확한 채택 경로를 통해, KRW1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표준 모델(gold standard)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규제기관, 은행 파트너, 기업, 생태계 혁신가들도 KRW1이 개념증명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자산 경제는 건전성, 투명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비덱스 소개

비덱스(BDACS)는 법인 및 기관투자자를 위한 선도적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을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혁신적인 프라임 커스터디 솔루션을 제공한다. 국내 최고 은행인 우리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외 컴플라이언스와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비덱스는 기관급 디지털 자산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비덱스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품군은 법인 고객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맞춤형 관리 솔루션,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 업계에서 가장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비덱스는 법인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신뢰, 보안,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

www.bdacs.co.kr

krw1.kr

linkedin.com/company/bdacs